

# 現 중3 대입, 수학 기하·과학 II 존폐 놓고 논란 “기초학력 떨어진다” vs “학계 이기주의”

교육부 이달 중 포함여부 발표  
시민단체 “이공계 대학서도  
기하 필수 아닌 곳 절반” 반박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101일 앞둔 지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대입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과 과학 일부 과목의 수능 포함 여부가 논란이다. 교육부는 당초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학 기하와 과학 II (물리 II·화학 II·생물 II·지구과학 II) 과목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학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학계와 교육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수능 수학과 과학 II 과목의 수능 적용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는 선발방식과 선발비용,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수능 과목 구조와 출제 범위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현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문·이과 통합형 교육을 받게 된다.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런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현재 주로 이과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가형과 문과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나형을 계열 구분 없이 '통합형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등 2개 과목으로 분리해 치르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2020학년도까지 수학 가형에 포함되는 기하는 필수선택과목에서 빠지고, 기존 8과목이던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중에서도 과학 II (물리 II·화학 II·생물 II·지구과학 II) 4과목이 제외된다. 새 교육과정에서 기하와 과학 II는 주로 고교 3학년 때 배우는 심화과목(진로선택과목)으로 수능 수학 통합형 공통과목은 고교 2학년 수준의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된다.

교육부는 진로 탐색을 위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수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하와 과학 II를 수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수학 능력에 차이가 커 출제범위를 줄이는 것은 대학 이공계의 수학 수월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경쟁력 저하도 우려하고 있다.

대한수학회 등 11개 수학 관련 학회로 구성된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2022학년도 수능을 현재처럼 가형과 나형으로 분리해야 하고, 이공계 열 학생이 치르는 시험 영역에 ‘기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 과학기술계 단체 13곳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과 과학 교육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하와 과학 II를 수능 과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학계가 본인들의 밥그릇을 위해 이기적

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기하와 과학 II 과목을 수능에서 제외하는 교육부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미국 고등학생의 AP 미적분 이수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대학 이공계에서조차도 기하가 포함된 미적분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가 44%인 절반에 가깝다”며 “수학과 과학기술계가 기하를 수능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학·과학계가 최근 정부가 2022 수능 개편안에서 기하와 과학 II를 제외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수능에서 기하와 과학 II가 빠지면 고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을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고교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며 “대학에서 기하와 과학 II를 중시한다면 고교에서 결코 기하와 과학 II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학생들도 기하나 과학 II가 중요하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승덕고 진로진학 지도를 맡고 있는 장광재 교사는 “수능에서 물리 I, 물리 II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몇 없지만, 내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물리 II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면서 “수시모집 등에서 학생 본인의 자발적인 학습 의지와 노력을 충분히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우정바이오가 지난 9일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희대학교

## 경희대 산학협력단, (주)우정바이오와 MOU

공동연구·인재양성 프로그램개발 등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홍충선)은 지난 9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우정바이오(대표이사 천병년)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정바이오는 생명과학 연구와 신약물

질 개발, 멸균장비 제조와 판매 등 국내 정밀의학 및 감염관리 분야 선도 기업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력력 공동·위탁 연구 참여 ▲산학협력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최신 기술 및 산업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시험 분석 및 연구용 고가 장비·시설 공동 활용 등을 약속했다. /한용수 기자

## 성신여대 윤용남 교수 ‘性理大全’ 최초 완역

(성리대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사업단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윤리교육과 윤용남 교수(사진)가 이끄는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사업단이 중국 송나라 성리학설을 집대성한 ‘성리대전(性理大全)’ 완역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리대전 일부가 번역된 적은 있으나 완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리대전은 중국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永樂帝) 때인 1415년에 편찬됐고, 4년 후인 1419년(세종 1년)에 우리나라에 전래됐다. 이 책을 본 세종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책의 보급과 공부에 힘을 쏟았



으며 세종대의 찬란한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성리대전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그동안 이

책에 대한 번역 요구가 많았지만, 워낙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문학, 과학, 음악, 어학, 정치 등 여러 학문분야가 망라된 책이어서 진행에 번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20여명의 연구진이 5년간의 연구 번역 작업과 3년간의 교정편집 작업을 통해 완역본을 완성하게 됐다. 이 책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아직 번역을 완성하지 못했다.  
윤용남 교수는 “번역하는데 있어서 내용 전달에 왜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원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주석과 설명을 붙였다”며 “성리대전에는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에 관한 내용까지 두루 담겼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회적 갈등 이슈를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성리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한농대 농수산업 경영비법 갖춘 현장실습 담당교수 모집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2학년 장기현장실습을 책임질 현장교수와 실습장을 연중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기현장실습은 8개월간 한농대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국내·외 우수 농장과 어장의 경영, 생산기법을 현장교수로부터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모집 대상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모집분야는 한농대 18개 학과의 전공과 관련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장과 현장교수다.

우선 현장교수는 ▲교육자적 소양과 덕망 ▲5년 이상(한농대 졸업생은 3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를 갖춘 농어업인 및 연구자가 요건이다.

신청서 접수는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된다. /이범종 기자 joker@



상명대 휴먼지능로봇공학과 로봇동아리 ‘휴머노이드 로봇클럽’ 소속 학생들이 지난 6일~12일까지 7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8 FIRA RoboWorld Cup & Cogress’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 상명대 휴먼지능로봇공학과 국제 로봇대회서 종합우승

‘FIRA RoboWorld Cup & Cogress’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휴먼지능로봇공학과 로봇동아리 ‘휴머노이드 로봇클럽’이 ‘2018 FIRA RoboWorld Cup & Cogress(이하 FIRA2018)’ 대회에 참가해 금3, 은3, 동3개를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명대 휴먼지능로봇공학과 2학년생 12명으로 구성된 휴머노이드 로봇클럽 팀은 지난 6일~12일까지 7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FIRA2018 ‘휴머

노이드형 로봇축구(Androsot) 부문에 참가해 챌린지1 종목에서 2위와 3위를, 챌린지2 종목에서 1위, 2위, 3위를 석권했다. ‘로봇 축구(Robot Soccer)’ 부문에서도 1위와 3위를 수상해 종합 합계에서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올해 23회를 맞은 FIRA 2018은 지역별 예선을 거친 20여개국 1200여명이 참가해 15개 부문에서 세계 각국의 분야별 로봇 기술을 겨루는 열띤 경쟁을 펼쳤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서울여대 초등학생·학부모 대상 ‘소프트웨어 캠프’ 개최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지난 9일~10일까지 서울 노원구 교내 인문사회관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캠프’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여학생과 어머니 9개 팀 총 18명이 참가해, 보드게임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본원리를 습득하는 ‘소프트웨어와 만나기’, 로봇 청소기 만들기를 통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소프트웨어와 친해지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9일~10일까지 서울 노원구 교내 인문사회관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캠프’를 개최했다. /서울여자대학교

### 동국대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참가팀 모집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2018년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Social Venture Accelerating program)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팅은 창업교육,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초기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된 소셜 임팩트 미니 해커톤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달 31일부터 1개월 간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 론칭을 위한 실전형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